

충남 서부지역 농민운동의 조직 및 활동

- 1970년대 이후 예산, 홍성, 당진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배성의 · 이대열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Peasant Movement in

Western Chungnam, Korea

Sung-Eul Bae and Dae-Yol Lee

Dept. of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is study investigated and summarized the history of peasant movement which had been done by various peasant associations Yesan, Hongsong, and Tangjin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Catholic Peasant Movement from 1970 to 1995. First of all, we classified all the peasant movements(Yesan ; 120 times, Hongsong ; 113 times and Tangjin ; 107 times / total ; 340 times) into 5 categories composed of movement time, movement type, movement method, the number of participators, and the movement subjects(issues). The frequency of peasant movement from 1990 to 1995, occupied 65.6%, which shows that the peasant movement was the most active during the time. The frequency of movement type, were we could find out, self-dependence type(62.9%), resistance type(15.6%) and request type(21.5%). The active way like congregation, demonstration, sit-in, rice file up struggle occupied 28.8% and it got the first place in movement way. In the movement subject category, the construction of organizations and solidarity activity amounted to 37.8% and democratization item(the union democratization and the social democratization related peasant) covered 16.8%. The 98 times of peasant movement were done in the active ways such as congregation and demonstration. However we cannot find these active ways in 1970s. In 1980s, the frequency of each item (congregation, demonstration, publicity and propaganda) was 28 times. But in 1990s, the frequency of congregation, or demonstration was higher than the others. The number of participators in peasant movement increased during 1980s~1990s. The movement of which participators were 100~499 was 32 times in 1980s and 70 times in 1990s each time. Such large scale movement amounted to over 30%. Furthermore, the large scale movement in which over 500 people participated amounted to 12 times in 1990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농민운동은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생업의 주체가 사회정치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한 종류이다.

사회운동은 그 운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여건의 반영으로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사회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운동주체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그것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즉 주관적인 요인이 결합해야 한다.

농민운동은 농민문제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 농민문제는 농민이 거주하는 농촌문제와 농민이 생업으로 삼는 농업문제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농민운동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다.

농민운동의 역사과정은 식민지 반봉건 투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민운동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실현이나 농민내부의 계급투쟁이 아니고 사회전반에 관한 내용의 문제이고 사회전체의 문제와 농민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토대에서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치투쟁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이후 농민운동의 초기에는 조직의 수준에 맞게 청원하고 건의하고 단순하게 요구하는 수준에서 점차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행정당국에 강제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활동의 우선순위는 농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었

다.

70년대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농민들이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에 참여하였다.

80년대에는 확대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인원의 양적인 팽창, 운동방법과 운동전개방법의 다양함,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농업·농민문제에 대응해 왔다.

농민운동은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농업정책의 신뢰나 집행효율을 위해서 중요하다. 농민운동단체는 농민운동의 지속성과 운동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농민운동의 실태와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행정기관에서는 농민운동을 치안유지 차원의 사회질서 저해요인으로 간주해 온 경향이 있으며 또한 사회체제 내에서 발전적으로 순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당사자들의 준비도 부족한 편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농민운동의 원인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인 농민 및 농촌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간 충남 예산, 홍성, 당진군지역의 군단위 농민운동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농민 및 농촌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농민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도별 농민운동 발생실태를 조사하여 농민운동의 변화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농민운동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

다.

셋째, 농민운동의 방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시기별로 농민운동의 참여규모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농민운동의 내용(쟁점)별 운동방법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민운동을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기농), YMCA 농촌사업, 전국농민협회, 군단위 자생적 농민회, 전국농민운동연합 등의 지원으로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결성되어 활동한 자주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운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70년대 이후 전국단위 농민운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와 각 군단위 농민단체에서 발행한 소식지, 활동보고서, 회보,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며 해당 농민운동과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와 관련인사들에 대한 면접조사 등 사실확인작업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2) 연구지역의 선정

충남 예산, 홍성, 당진군 등 3개군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충남은 80년대 이후 전남북,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농민운동의 대중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예산, 홍성, 당진군은 농민운동의 조직과정에서 전국적인 모습을 축약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개군 모두 한국가톨릭농민회의 분회와 산재회원을 갖고 있

으며 예산군의 “예산농민회”와 홍성군의 간척지 투쟁은 조직과 활동에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다. 홍성군은 대한 YMCA 연맹의 농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농민회 조직사업의 성과로 “홍동YMCA영농회”가 조직된 지역이다. 예산군의 “예산군농의회”는 전국농민협회의 창립단체로 활동하였으며 “예산농민회”는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지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의 전군에 걸쳐서 가톨릭농민회원이 없는 군이 없을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와 물적 토대를 갖고 있던 가농의 군단위조직인 “당진협의회”도 중앙단위의 자주적 농민단체로의 통합의지에 따라 “전국농민운동연합”의 출범을 전후하여 “당진군 농민회”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3개군이 모두 군농민회로 통합, 농민운동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으로 기술통계 및 X2-검증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PSS 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연구의 결과

1. 연구지역 내의 농민운동 전개과정

본 연구의 관심지역인 예산, 홍성, 당진군 지역에서는 1930, 40년대에 농민조합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본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충남의 12개 군에 농민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지방 행정기능을 장악했던 좌익 인민위원회가 9개 군에 조직되어 있었다.

물론 예산, 홍성, 당진군도 포함되어 있었고

” 전국농민회총연맹 (1991. 8. 19~21), 「대전·충남지역 운동의 현황과 과제」, 「군 농민회 회장단 면수회」 자료집.

브루스 커밍스가 분석한 3개군의 급진성은 충남지역 평균을 넘어서고 있었다.²⁾

예산, 홍성, 당진군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군 농민조합은 면 농민조합을 조직해 나가면서 보안대, 청년동맹과 더불어 좌파세력의 일선 행동조직으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1946년 10월 좌익활동은 상황 반전을 기도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예산, 홍성, 당진에서도 지서와 경찰서가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단정수립 이후 농지개혁은 소작지 비율의 현격한 저하를 가져왔고 농지문제가 농민운동의 더 이상의 중심적인 과제로 되지 못하였다.

분단의 고착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적 농민운동은 궤멸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은 이 지역에 전개되었던 좌우의 대립의 총체적인 결정판으로 작용하면서 “모란돌이 정 맞는다”는 식의 체념으로 농민들은 1950, 60년대를 넘기게 되었다.

1976년은 한국카톨릭농민회 충남 연합회의 창립이 이뤄진 해이며 크리스찬 아카데미 농민

교육의 집중효과지역으로 1979년에 충남의 서산, 당진, 예산, 공주가 발전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³⁾

1950~60년 기간동안 농업의 상대적인 위축은 이농을 부추겼고 농가경제의 피폐화는 농민운동의 객관적인 조건을 마련하기에 충분했다.

1970년대 한국의 농민운동은 카톨릭농민회의 각종 사업과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활동가 양성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다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질적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카톨릭농민회의 활동은 기독교단체에 의한 기독교농민회, YMCA 농촌사업을 부추겼으며 선진적인 농민운동 활동가들에 의해서 종교단체에 의한 농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농민협회를 발족시켰다.⁴⁾

자생적인 군 농민회의 등장과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4월 전국 농민회총연맹이 결성되어 농민운동의 활동내용과 형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²⁾ Bruce Comings(1981), The Origins of Korean War: Liberation and Establishment of Seperate Regimes. Bruce Comings, 「미 군정하의 지방정치 연구」,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 pp. 357-361.

Comings는 미 군정측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과학적 틀을 통해 남한내 모든 군의 인구 변동과 급진성 지수를 작성했다. 아래 표는 충남 일부지역의 급진성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군	급진성 지수	비 고
예산	14	인민위원회가 지배적이지 않았으면 2점, 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이 있었으면 3점, 위원회가 지배적이었으면 6점, 10월 항쟁시 반란의 증거가 있었으면 8점, 반란 반발지역은 10점으로 계산. 제주도는 20점.
홍성	14	
당진	14	
대덕	6	
부여	6	
서산	14	
청양	2	
아산	2	
천안	14	

³⁾ 이우재(1991), 한국농민사 연구(서울:한울) pp. 224.

⁴⁾ 정명채 외(1995), “주요농민단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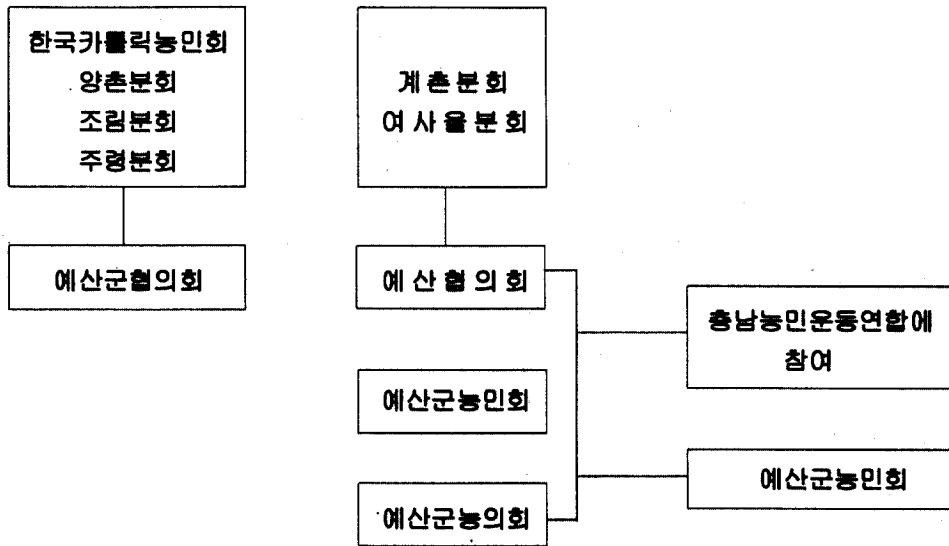
1) 예산군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 과정

예산군은 1975년 현재 16만을 넘는 인구가 20년이 지난 1995 이후 12만을 넘고 있으며 무한천과 삼교천 유역에 미작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농과계 대학이 예산읍에 있어서 이 학교를 졸업 한 고학력 농민이

군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어서 농업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고 사과를 비롯한 원예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예산군에 결성된 한국카톨릭농민회의 분회와 예산군협의회에서부터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결성단체인 예산군농민회까지의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예산군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

예산군농민회는 1990년 8월에 전국 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발족될 당시 각 군에 할당된 회비를 가장 많이 낼 정도로 농민회원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2) 홍성군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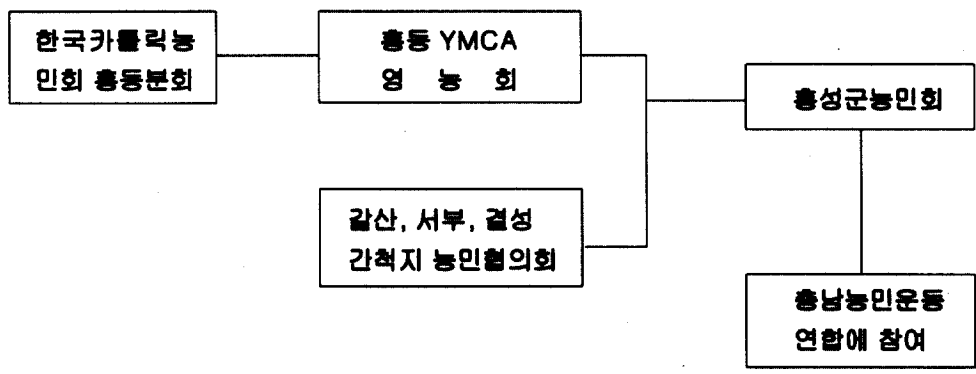
홍성군은 10만2천(1995년 현재)의 인구나 421.97km²의 면적, 그리고 44.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충남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금마천 유역의 평야지를 제외하고는 주로 산악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돈, 양계를 비롯한 축산농업이 발달해 있고 대전을 제외한 충남지역에

서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군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 YMCA의 농민운동 활동가 양성과 서산 AB지구 간척지 매립으로부터 시작된 간척지 농민들의 투쟁으로, 1987년 군단위 통합농민회를 창립하였다.

홍성군 농민회는 농민운동과 더불어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운동에 한 축이 될 정도로 지역내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두드러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 홍성군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흥성군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

3)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과정

당진군은 1970년에 17만에 달하던 인구가 12만 2천명(1995년 현재)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지면적은 삼교천 방조제와 대호방조제의 완공으로 증가되었다.

당진군은 충남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산지대로 높은 산과 준령이 적으며 간척지를 비롯한 평야지가 많은 편에 속한다.

삼교천 방조제와 대호방조제가 넓은 간척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진군은 이미 70년대에 한국카톨릭농민회 충남연합회원의 반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회원이 많았으며* 19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집회에 대형버스 13대를 대절하여 500여명을 동원할 정도로 대중 동원 능력이 뛰어난 지역이었다.

한국카톨릭농민회의 분회 결성과 당진협의회, 당진군 농민회의 발생과 통합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2. 조사대상지역의 농민운동의 실태 분석

1) 농민운동의 일반적 특징

예산, 홍성, 당진군 지역에서 행하여진 농민운동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예산군에서 120회, 홍성군에서 113회, 당진에서 107회 총 340회였으며 이를 운동발생시기, 운동유형, 운동방법, 참여 인원, 운동내용(쟁점)등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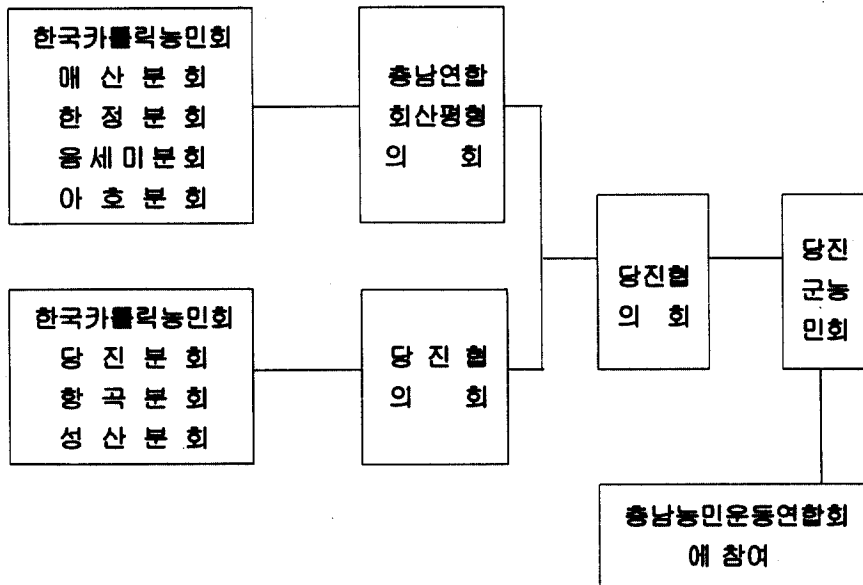
(1) 발생시기

〈표 1〉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340회의 농민운동중에서 70년대에 14회, 80년대에 103회이고 223회(65.6%)가 1990~1995년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70년대 개발독재와 80년대 군부권 위주의 정권시기에는 공개적인 대중운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통제로 농민운동의 조직과 활동이 주로 비공개적이고 일회적인 형태로 미미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농민운동의 유형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농민운

* 가능 충남연합회장(1976~1979)을 지낸 이용호씨(예산군 고덕면)는 당진의 회원수가 많아서 충남연합회 차원의 집회가 원만히 치뤄지기 위해서는 당진에서 회원동원이 되어야 할 정도로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림 3> 당진군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

<표 1>

1970년대 이후 연구지역의 농민운동 영역별 상태

단위 : 회, (%)

영역	항 목	빈 도(%)	계
발 생 시 기	• 1970~1979년	14 (4.1)	340 (100.0)
	• 1980~1989년	103 (30.3)	
	• 1990~1995년	223 (65.6)	
운 동 형	• 자조형운동	214 (62.9)	340 (100.0)
	• 저항형운동	53 (15.6)	
	• 요구형운동	73 (21.5)	
운 동 방	•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98 (28.8)	340 (100.0)
	• (항의)방문, 서명운동	24 (71)	
	• 홍보, 선전	86 (25.3)	
	• 교육, (설문)조사	90 (26.5)	
	• 기타	42 (12.4)	
참 여 원	• 50명 미만	122 (35.9)	340 (100.0)
	• 50~99명	25 (7.4)	
	• 100~499명	102 (30.0)	
	• 500명 이상	12 (3.5)	
	• 미상	79 (23.2)	
운 동 내 용 (쟁점)	• 토지, 농산물가격, 부채문제	39 (11.5)	340 (100.0)
	• 농업정책 (UR, 수세, 의보, 수입개방 등)	43 (12.6)	
	• 민주화 (반정부 투쟁, 선거시기운동 등)	57 (16.8)	
	• 조직결성, 연대사업	129 (37.9)	
	• 기대(환경, 통일, 협동사업 등)	72 (21.2)	

동의 유형중에서 자조형 농민운동이 214회, 저항형 농민운동이 53회, 요구형 농민운동이 73회를 차지하고 있다.

요구형, 저항형운동이 126회로 자조형의 214회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농민운동진영 자체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운동방법

집회, 시위 등 적극적인 운동방법은 80년대와 90년대에 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홍보, 선전과 교육, 조사 등의 운동방법도 90년대 들어서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농민운동조직의 전국적 체계를 갖춘 90년대에 운동의 양적인 면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보, 선전과 교육, 조사활동의 빈도 역시 70년대의 비공개방식을 벗어나서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4) 참여인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운동이 122회로서 35.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00~499명이 참여한 운동이 102회로서 전체의 3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민운동의 대중적 역량이 성숙했음을 뜻하기도 하거니와 농

민운동이 대중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운동내용(쟁점)

운동내용(쟁점)중에서 조직결성, 연대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129회)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환경운동, 통일운동, 협동사업이 72회(21.2%)이고 농민관련 조합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57회(16.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 농민운동 발생시기별 농민운동 방법

농민운동의 발생시기별 운동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운동의 발생시기별 운동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농민운동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70년대 농민운동이 교육이나 조사활동에 치중하고 집회, 시위 등 적극적인 운동방법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선도적인 활동가에 의한 교육이나 조사활동이 운동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70년대 연구지역내의 운동이 조직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0년대에는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과 더불어 홍보선전 및 교육 조사활동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90년대 들어서

<표 2>

농민운동의 발생시기별 운동

단위 : 회, (%)

구 분	70~79년	80~89년	90~95년	계	D.F	X ²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28 (28.6)	70 (71.4)	98 (28.8)	8	21.30*
(항의)방문, 서명운동	3 (12.5)	10 (41.7)	11 (45.8)	24 (17.1)		
홍보, 선전		28 (32.6)	58 (67.4)	86 (25.3)		
교육(설문)조사	7 (7.8)	26 (28.9)	57 (63.3)	90 (26.5)		
기 타	4 (9.5)	11 (26.2)	27 (64.3)	42 (12.4)		
계	14 (4.1)	103 (30.3)	223 (65.6)	340 (100.0)		

*: P<0.05

더욱 높은 빈도를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운동방법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농민운동유형별 농민운동내용(쟁점)

농민운동유형과 운동내용(쟁점)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표 3>과 같이 농민운동유형과 운동내용(쟁점)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운동유형과 운동내용(쟁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조형 농민운동은 조직결성, 연대사업 및 환경, 통일, 협동사업 등에 있어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항형 농민운동은 농업정책과 민주화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요구형 농민운동은 토지, 농산물가격, 부채문제와 민주화영역(반정권운동, 선거시기 운동 등)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적정한 농산물가격, 농가 부채의 누중 등의 농민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에 해결을 요구하는 요구형 운동이 토지, 농산물 가격, 부채문제 항목의 39회 중에서 17회로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 개방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정책에 대한 격렬한 저항형 운동은 농업정책항목 43회 중에서 25회로 43.9%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화 항목에서는 요구형, 저항형, 자조형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표 3> 농민운동유형과 운동내용(쟁점)과의 관계

단위 : 회, (%)

구 분	자 조 형	저 항 형	요 구 형	계	D.F	X ²
토지, 농산물가격, 부채문제	11 (28.2)	2 (5.1)	26 (66.7)	39 (11.5)	8	212.63*
농업정책 (UR, 수세, 의보, 수입개방 등)	8 (18.6)	18 (41.9)	17 (39.5)	43 (12.6)		
민주화 (반정부, 선거시기 운동 등)	10 (17.5)	22 (38.6)	25 (43.9)	57 (16.8)		
조직결성, 연대사업	122 (94.6)	6 (4.7)	1 (0.8)	129 (37.9)		
기타 (환경, 통일, 협동사업 등)	63 (87.5)	5 (6.9)	4 (5.6)	72 (21.2)		
계	214 (62.9)	53 (15.6)	73 (21.5)	340 (100.0)		

*: P<0.05

4) 농민운동방법별 참여인원 규모

운동방법과 참여인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운동방법과 참여인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방법과 참여인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의 운동방법은 100~499명의 규모에서, (항의)방문, 서명운동의 운동방법과 교육, 조사 등의 운동방법은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온건한 운동방법보다 집회, 시위등 적극적인 운동방법이 더 많은 빈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운동방법에 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농민운동 참여인원과 운동 발생시기

농민운동의 참여인원과 발생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에서와 같이 참여인원과

<표 4>

운동방법과 참여 인원과의 관계

단위 : 회, (%)

구 분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항의) 방문, 서명운동	통보, 선전	교육 (설문 조사)	기타	계	D.F	X ²
50명 미만	23 (18.9)	15 (12.3)	13 (10.7)	51 (41.8)	20 (16.4)	122 (35.9)	16	117.59*
50~99명	6 (24.0)		4 (16.0)	15 (60.0)		25 (7.4)		
100~499명	46 (45.1)	3 (2.9)	41 (40.2)	10 (9.8)	2 (2.0)	102 (30.0)		
500명 이상	6 (50.0)	3 (25.0)	3 (25.0)	-		12 (3.5)		
미상	17 (21.5)	3 (3.8)	25 (31.6)	14 (17.7)	20 (25.3)	79 (23.2)		
계	98 (23.8)	24 (7.1)	86 (25.3)	90 (26.5)	42 (12.4)	340 (100.0)		

*: P<0.05.

<표 5>

참여인원과 발생시기와의 관계

단위 : 회, (%)

구 분	50명 미만	50~99명	100~499명	500명 이상	미상	계	D.F	X ²
70~79년	13 (92.0)	-	-	-	1 (7.1)	14 (4.1)	8	36.55*
80~89년	47 (45.6)	7 (6.8)	32 (31.1)	-	17 (16.5)	103 (30.3)		
90~95년	62 (27.8)	18 (8.1)	70 (31.4)	12 (5.4)	61 (27.4)	223 (65.6)		
계	122 (35.9)	25 (7.4)	102 (30.0)	12 (3.5)	79 (23.2)	340 (100.0)		

*: P<0.05

발생시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운동의 참여인원과 발생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80, 90년대에는 100명 이상 499명 인원이 참여한 운동이 각각 31%를 넘고 있으며, 90년대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운동이 12회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0년 이후 전국 농민회총연맹이 결성되어 농민운동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국적인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군단위 농민운동에 참여한 인원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 농민운동내용(쟁점)별 운동방법
운동내용(쟁점)과 운동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운동내용(쟁점)과 운동방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농산물가격, 부채문제를 이슈로 한 농민운동의 방법은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농업정책(UR, 수세, 의보, 수입개방)과 민주화(반정부운동, 선거시기운동)가 운동쟁점인 경우에도 주로 적극적인 운동방법을 가장 많이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운동방법이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민운동의 내용(쟁점)에 있어서도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6> 운동내용(쟁점)과 운동방법과의 관계
단위 : 회, (%)

구 분	토지, 농산물 가격, 부채문제	농업정책 (UR, 수세, 외보, 수입 개방 등)	민주화 (반 정부, 선거 시기 운동 등)	조직결성, 연대사업	기타 (환경, 통일, 협동 사업 등)	계	D.F	X ²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25 (25.5)	20 (20.4)	20 (20.4)	25 (25.5)	7 (7.1)	98 (28.8)	16	167.45*
(항의) 방문서, 운동	1 (4.2)	6 (25.0)	15 (62.5)	-	2 (8.3)	24 (7.1)		
홍보, 선전	6 (7.0)	7 (8.1)	6 (7.0)	57 (66.3)	10 (11.6)	86 (25.3)		
교육 (설문) 조사	7 (7.8)	7 (7.8)	4 (4.4)	42 (46.7)	30 (33.3)	90 (26.5)		
기 타	-	3 (7.1)	11 (26.2)	5 (11.9)	23 (54.8)	42 (12.4)		
계	39 (11.5)	43 (12.6)	57 (16.8)	129 (37.9)	72 (21.2)	340 (100.0)		

*: P<0.05

III. 결 론

본 논문은 1970년 이후 충청남도 서부지역인 예산군, 홍성군, 당진군에서 벌어졌던 농민운동을 1995년까지 연도별로 조사 정리하여 시기별 운동발생건수, 운동유형, 운동방법, 참여인원, 운동내용(쟁점) 등을 분석하여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 삼은 340회의 농민운동 중에서 70년대에 14회, 80년대에 103회이고 223회(65.6%)가 1990~1995년에 집중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농민운동은 1990~1995년이 65.6%를 차지하여 활발한 활동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 농민운동의 유형중에서 자조형 농민운동이 214회, 저항형 농민운동이 53회, 요구형 농민운동이 73회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조형이었고 요구형, 저항형의 순이었다.

집회, 시위 등 적극적인 운동방법은 80년대와 90년대에 배이상 증가하였으며 홍보, 선전과 교육, 조사 등의 운동방법도 90년 들어서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운동이 122회로서 35.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00~499명이 참여한 운동이 102회로서 전체의 30.0%를 차지하고 있다.

운동내용(쟁점)중에서 조직결성, 연대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129회)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환경운동, 통일운동, 협동사업이 72회(21.2%)이고 농민관련 조합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57회(16.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시기별 농민운동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70년대 농민운동이 교육이나 조사활동에 치중하고 80년대에는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과 더불어 홍보 선전 및 교육 조사활동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90년대 들어서 더욱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집회, 시위 등 적극적인 운동방법은 70년대에는 전무하다가 90년대에 전체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90년대에 집중되고 있다.

셋째, 농민운동유형과 운동내용(쟁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조형 농민운동은 조직결성, 연대사업 및 환경, 통일, 협동사업 등에 있어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항형 농민운동은 농업정책과 민주화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요구형 농민운동은 토지, 농산물가격, 부채문제와 민주화영역(반정부운동, 선거시기운동 등)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운동방법과 참여인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의 운동방법은 100~499명의 규모로, (항의)방문, 서명운동의 운동방법과 교육 조사 등의 운동방법은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민운동의 참여인원과 발생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80, 90년대에는 100명 이상 499명의 인원이 참여한 운동이 각각 31%를 넘고 있으며, 90년대에 500명 이상의 대규모 운동이 12회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운동내용(쟁점)과 운동방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토지, 농산물가격, 부채문제를 이슈로 한 농민운동의 방법은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 적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농업정책(UR, 수세, 의보, 수입개방 등)과 민주화(조합 민주화, 반정부운동, 선거시기운동 등)가 운동쟁점인 경우에도 주로 적극적인 운동방법을 가장 많이 구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70년대는 연구지역의 농민운동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운동의 유형도 자조형이 대부분이었다.

80, 90년대에는 집회, 시위 등의 적극적인 운동방법이 동원되었고 자조형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운동이 집회, 시위, 농성, 점거농성 등의 방법을 택했으며 참여인원은 100~499명

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의 내용(쟁점)에서는 조직성과 연대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IV. 참고 문헌

1. 강제언. 1980. "봉건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2. 권형철. 1985. "농축산물수입반대 및 소값 피해 보상운동 보고서", 현장 4, 종속현실과 민족운동. 돌베개.
3. 권영근. 1987.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현황과 그 영향",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4. 김낙중. 1983. "한국농민운동소사", 한국농업문제 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5. 김병태. 1981.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한국 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6. 김태일. 1991.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노금노. 1988. "현단계 농민현실과 농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II, 연구사.
8. 박진도. 1988. "8·15 이후 한국농업정책의 전개 과정",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I, 연구사.
9. 박현채 외. 1984.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1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회. 1983. 농민층분해와 농민 운동, 미래사.
11. 안성진. 1985. 한국농촌사회의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카톨릭농민운동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윤준상. 1994. 지역사회개발행정사업에 대한 주민의 집단행동 참여와 그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이도행. 1994. 충남 서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성배. 1990. 한국 주민운동이 행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이승훈. 1991. 한국농촌사회에서 농민운동의 수 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이우재. 1991. 한국농민운동사 연구, 한울.
17. 이정식, 스칼라피노. 1982. "미군정기의 한국공산주의운동",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돌베개.
18. 이정찬. 1990. "자주대중노선의 정착과 농민운동의 전국 단일조직 건설",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 지수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20. 장상환. 1988. "현행 토지문제의 성격과 해결방향", 한국농업 농민문제 연구 I, 연구사.
21. 장원석. 1989. "현행 농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농업·농민문제 연구, 연구사.
22. 정명채 외. 1995.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정 민 외. 1989. 80년대 사회운동 논쟁, 한길사.
24. 한국가톨릭농민회편. 1990. 지역사회지배구조와 농민, 연구사.
25. Bruce Comings. 1981. The Origins of Korean War : Liberation and Establishment of Seperate Regimes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26. 대한YMCA연맹. 1991. YMCA 농촌사업 보고서 1976~92.
2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1985. "카톨릭농민회의 탄생과 그 활동",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 분도출판사.
28. 한국카톨릭농민회. 1986. 한국카톨릭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대회 자료집 : 농민해방과 민족통일을 향하여.
29. _____. 1978. 활동사례집 제 1 집.
30. 한국가톨릭농민회 충남연합회, 분회현황.
31. _____. 1984. 충남연합회 조직실태점검표.
32. _____. 1987. '86년 활동보고서.
33. _____. 1986. '85 충남연합회 활동보고서.
34. _____. 1985. 1984 활동보고서.
35. _____. 1984. 83년도 활동보고서.
36. _____. 1983. 1982년도 사업보고서.
37. _____. 1982. 81년도 사업보고서.
38. _____. 1981. '80 사업보고서.